**데이터로 본 서울 2020 <교통>**

**도로시설**

서울시의 도로 총연장은 1979년 6,557km에서 2021년 8,328km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79년 전체 도로의 34.2%가 비포장 도로였으나 2000년 이후 포장률이 증가하면서 2008년 이후 전체 도로의 포장률은 100%이다.

서울시의 도로율은 2004년 21.5%에서 2021년 2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서울시의 도로율은 광진구가 28.3%, 마포구가 26.8%로 가장 높았고 2021년 역시 광진구가 28.8%, 마포구가 28.6%로 가장 높았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큰 증가율를 보이는 구는 강서구(3.9%), 은평구(3.6%), 금천구(3.2%), 서초구(3.1%)이다.

서울시는 1995년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에서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가 분리되면서 현재와 같은 25구 체제가 완성되었다. 1993년 서울시의 구별 도로 연장은 성동구가 699,892m, 성북구가 593,662m로 가장 높았고 1995년 서울시의 구별 도로 연장은 성북구가 595,650m, 강남구가 415,109m로 가장 높았다.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리되면서 성동구의 도로 연장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서울시의 구별 도로 연장은 성북구가 632,634m, 강남구가 441,986m로 가장 높았다. 1993년부터 2021년까지 강서구(89,538m), 서초구(63,451m), 노원구(55,010m)가 큰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 서울시의 구별 도로 면적은 강남구가 5,410,880m², 서초구가 4,903,896m²로 가장 높았고, 2021년 역시 강남구가 5,803,381m², 서초구가 5,564,352m²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구별 도로 면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강서구(820,918m²), 서초구(660,456m²), 마포구(640,094m²)가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 도로 총연장] (1979~2021, 막대)

[서울시 구별 도로율] (2004~2021, 맵)

[서울시 구별 도로 연장] (1993~2021, 막대)

[서울시 구별 도로 면적] (2000~2021, 막대)

**교통량 및 통행속도**

서울시의 교통량은 2018년 10,694,762대/일에서 2021년 9,931,850대/일로 약 76만 대/일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간선 교통량이 약 26만 대/일이 감소하였다. 2020년 서울시의 교통량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020년 서울시의 일별 교통량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서울시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반대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2013년 26.4km/h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 서울시내 이면도로 65곳의 제한속도 하향구간을 확대하고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속도제한 강화와 노인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면서 2014년 25.7km/h로 개선되었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 연말부터 '안전속도5030' 정책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50km/h로 조정되면서 2021년 서울시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전년도 통행속도인 24.1km/h에서 23.0km/h로 개선되었다.

서울시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일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금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2013년 이전에는 낮시간대에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오전시간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오후시간대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이후부터 값이 튀는 것은 조사방법의 변화와 조사대상도로 연장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교통량] (2018~2021, 라인)

[서울시 차종 지역별 통행속도] (1995~2021, 라인)

[서울시 승용차의 요일별 통행속도] (2004~2021, 라인)

[서울시 승용차의 시간대별 통행속도] (1999~2021, 라인)

주요 지점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한 지점은 올림픽대로였으며(일평균 243,077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지점 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선유형에서는 동부간선도로(월계1교)와 남부순환로(신월IC)가 각각 12만 대와 11만 대로 많았으며, 교량유형에서는 한남대교(18만 대)와 성산대교(15만 대), 도시고속유형에서는 올림픽대로(24만 대)와 강변북로(23만 대), 도심유형에서는 사직로(사직터널)(7만 대)와 남산1호터널(6만 대), 시계유형에서는 강변북로(난지한강공원)(24만 대)와 올림픽대로(강일IC)(20만 대)의 교통량이 많았다.

[서울시 주요 지점별 교통량] (2018~2021, 맵)

**통행**

2020년 서울시의 목적통행량은 귀가(1,153만통행/일), 출근(606만통행/일), 기타(211만통행/일), 업무(153만통행/일), 등교(138만통행/일), 귀사(108만통행/일), 쇼핑(97만통행/일), 여가(91만통행/일), 학원(71만통행/일), 배웅(14만통행/일) 순으로 나타난다. 서울 → 비서울 통행에서는 귀가통행이 가장 많고, 비서울 → 서울 통행에서는 출근통행이 많아 서울시 외부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로 출근하는 통행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서울시의 통행수단은 승용차(756만통행/일)가 가장 많았으나 지하철·철도(617만통행/일)와 버스(575만통행/일)를 포함한 대중교통 또한 주요 통행수단이다. 하지만 2019년에 비해 2020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행량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이동에는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반면 서울 내 이동에서는 도보가 가장 많은 통행량을 차지한다.

**[목적통행량] (2016~2020, 막대)**

[수단통행량] (2016~2020, 막대)

**교통수단**

2020년 서울시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대중교통 61.4%(버스 21.7%, 지하철 39.7%), 승용차 28.5%, 택시 5.3%, 기타 4.7%로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서울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65.6%, 승용차수단 분담률은 24.5%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면서 2020년 서울시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61.4%로 감소하였고 승용차수단 분담률은 28.5%로 증가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승용차수단 분담률보다 높지만 경기, 인천은 승용차수단 분담률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 교통수단 분담률] (1996~2020, 막대)

[경기도 교통수단 분담률] (2002~2020, 막대)

[인천광역시 교통수단 분담률] (2012~2020, 막대)

**승용차 보유**

2007년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93만 대로 주민등록인구 1인당 0.29대를 보유하였고, 2021년에는 318만 대로 2007년 대비 8.2% 증가하여 1인당 0.33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구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21년 기준 송파구가 25만 대로 가장 많고 강남구가 24만 대, 강서구가 21만 대로 뒤를 이었으나, 주민등록인구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는 중구가 0.5대, 강남구가 0.45대, 서초구가 0.43대 순이었다.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 (2007~2021, 라인, 막대)

**교통사고**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건수 216,585건, 부상자수 324,049명, 사망자수 243명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5만여 건, 부상자수는 8만여 명이 증가했으나, 사망자수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월별로는 대체로 2월의 사고건수가 가장 적었고,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10월에서 1월까지의 사고건수가 많았다. 요일별로는 매년 일요일이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가장 적었으며, 사고건수는 금요일이, 부상자수는 토요일이 가장 많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의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가장 많고 승합차가 그 다음이었으나, 2021년에 들어 이륜차종의 사고건수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서 승용차 다음으로 사고건수가 많았다.

구별로는 사고건수와 부상자수에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상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양천구가 잇고 있다. 도봉구는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가장 적었다.